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

김계하¹ · 조은아^{2*}

¹조선대학교 간호학과, ²호남대학교 간호학과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Regarding Breast Feeding of Women's Mothers and Mother-in-laws

KyeHa Kim¹, EunA Cho^{2*}

¹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regarding breast feeding of women's mothers and mother-in-laws with a grandchild aged less than 24 months. The degree of knowledge regarding breast feeding was 14.84 points out of 25 points, while the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was 83.88 points. Additionally, 16.4%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education regarding breast feeding was unnecessa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regarding breast feeding among individuals of different age ($p<0.05$), economic status ($p<0.05$), and with different aged grandchildren ($p<0.05$). Addition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based on the type of feeding ($p<0.05$), the practice of breast feeding ($p<0.01$), and reasons for low breast feeding rate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regarding breast feeding and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The factors affecting knowledge regarding breast feeding were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and middle-class economic statu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included knowledge of breast feeding and the practice of breast feeding. Overall, the subjects had high educational needs regarding breast feeding; therefore, women's mothers and mother-in-laws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for various types of education to improve their breast feeding knowledge.

Key Words: Breast feeding, knowledge, attitude, education, needs

1. 서 론

모유는 출산 후 산모가 자신의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음식으로 아기의 감염을 낮추고 면역반응의 발달을 도와준다. 또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치열이나 치과 문제를 감소시키며 지능을 발달시킨다. 산모에 대한 모유수유의 장점으로서는 자궁수축이 잘되고 임신 전의 외모로 쉽게 회복되며 유방암, 난소암의 발생빈도가 저하된다는 점이다(Lee 등 2011). 또한 모유수유를 한 산모에게는 산후우울이 적게 나타나며 모자간에 강한 애착이 증가한다(Lee 등 2011). 그러므로 모유수유는 아기와 엄마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인 모두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Park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던 모

유수유율이 200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6개월 완전모유수율이 2006년 26.8%, 2009년 36.2%로 증가하기는 했지만(Kim 등 2009) 아직 서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모유수유 중단 시기는 1개월 이내가 62.5%였으며, 특히 산후 1주일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Jung 2011) 주위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되어진 모유수유 영향 요인으로서는 분만기관에서의 모유수유 권장, 모유수유에 대한 의식, 지식, 수유방법에 대한 아버지의 견해, 어머니의 취업상태, 학력, 연령, 경제상태, 모유량 부족, 과거 모유수유 경험, 분만형태 등이 었다(Lee 등 2002; Park 2002; Sohn 2007). 또한 Lee 등(2003)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실천 예측요인으로 모유수유 문제 수, 첫 모유수유 만족도, 모유수유 자신감 등이 유의한

*Corresponding author: EunA Cho,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417 Eodeungno, Gwangsan-gu, Gwangju 506-714, Korea
Tel: 82-62-940-5549 Fax: 82-62-940-5068 E-mail: jouoa@honam.ac.kr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며 모유수유를 통한 만족감은 모유수유의 실천 및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인식하는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정도가 모유수유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im 2009) 의료계와 지역사회의 지지 역시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끈다(Cattaneo & Quintero-Romero 2006). 그러므로 모유수유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모유수유 지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인, 지역사회, 가족들의 지식이나 태도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전통적인 산후조리를 하는데, 산후조리 장소로는 자택 39.3%, 친정집 27.9%, 조리원 20.7% 순이었으며, 산후 조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어머니가 6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어머니 16.4% 순으로 나타나(Park 2009)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시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유 결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산모 자신과 친정어머니로 조사되었고(Sohn 2007; Jung 2011), Song 등(2008)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래 모유수유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사람으로 친정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족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모유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도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단 위험요소를 조사한 연구에서 가족, 친구의 지지를 받은 그룹이 가장 저위험군으로 나왔고(Tenfelde 등 2012), 모유수유 기간과 적절한 가족지지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Cernadas 등 2003) 분만 후 사회적 지지가 안될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빨리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Kehler 등 2009; Henderson & Redshaw 2011) 모유수유에서 지지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고교생(Choi & Lee 2006), 여대생(Kim & Choi 2001; Lee 등 2008), 배우자(Jin 2011; Kenosi 등 2011), 의사, 간호사, 의료요원(Park 2009; Hanif 등 2010)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정작 양육을 도와주고 모유수유를 지지해주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의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식수준별 교육 및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Lee 등 2008), 가족 중 특히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교육요구를 알아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교육요구를 조사함으로써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근거중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 교육요구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 교육요구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월 이내의 손주가 있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G광역시 1개 여성전문병원의 보호자, 1개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병동 및 기타 병동의 보호자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로 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2개 기관의 기관장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도 조사 전에 연구 목적,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음으로써 대상자를 최대한으로 윤리적으로 보호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일원 분산분석의 표본 수 결정을 위한 G*Power 3.12 분석에 의해 $\alpha = .05$, $power = .80$, 중간효과크기 $f = .25$, 집단수($n=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그룹 당 45명으로 최소 표본 수가 총 180명인 것을 근거로 산출하였고 결측치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대상자 210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명을 제외한 195명이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1) 모유수유 지식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Lee (199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총 25 문항으로 영아에게 이로운 점 8문항, 산모에게 이로운 점 4 문항, 모유수유의 방법과 기술 및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방법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에 1점, 오답과 모르겠다면 0점을 주어 총 25점이 만점이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 였다.

2) 모유수유 태도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Jung (1997)이 초산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총 2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긍정적 문항 11문항과 부정적 문항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다.

3) 교육요구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매우 불필요' 1점부터 '매우 필요' 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한 1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지식, 태도, 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 교육요구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χ^2 -test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9.5세였으며, 59세 이하가 54.9%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30.8%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83.1%였으며,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9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친정어머니가 55.4%, 시어머니가 44.6%였으며, 대상자의 94.4%가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험이 있었다. 손주의 연령은 평균 7.86개월이었으며, 대상자의 39%가 현재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다. 산모(딸, 며느리)의 수유형태는 54.4%가 혼합수유, 23.6%가 완전모유수유, 22.0%가 인공수유를 실시하고 있었다. 모유수유 실천에 대해서는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53.8%,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가 44.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50.3%가 엄마의 직업, 23.6%가 지식 부족, 16.4%가 모유량 부족이라고 대답하였다. 모유수유 교육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에 대해서는 48.2%만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

며, 그 중 48.9%가 대중매체, 22.3%가 가족, 13.8%가 의료인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제공자는 40.5%가 가족, 35.4%가 의료인, 19.0%가 대중매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 교육요구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25점 만점에 14.84점이었으며, 영아에게 이로운 점이 5.86, 산모에게 이로운 점이 2.12, 모유수유 방법과 기술 및 문제 해결점이 6.86로 나왔다. 이는 Lee(1997)의 연구에서 산전교육을 받은 산모의 21.8점과 대조군의 15.7점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점수이다. 또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미국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4점 만점에 평균 17점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점수로 (Ahmed 등 2011)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는 산모나 대학생 등에 비해 모유수유 지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48.2%만이 모유수유 교육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 부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대생 79.9%(Kim & Choi 2001), 배우자 94.5%(Jin 2011)와 비교했을 때도 교육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문항별 정답율은 '아기에게 젖을 물릴때는 유륜까지 깊숙이 물린다'(87.2%)가 가장 높았으며, '모유에는 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있다'(86.7%), '모유먹는 아기는 우유먹는 아기에게 비해 감기에 덜 걸린다'(86.2%), '모유먹고 자란 아기는 알레르기 같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84.6%), '모유를 먹이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율이 낮다'(84.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젖먹이는 동안 약중에 페니실린은 먹어도 된다'(6.7%), '젖먹일 때 한 쪽 젖을 다 먹이고 난 후 다른쪽 젖을 먹인다'(16.9%), '모유를 먹이는 산모는 분만 후 1년까지는 자연 피임이 된다'(27.7%), '모유를 먹이는 여성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31.8%)는 정답율이 낮았다<Table 3>.

영역별로는 산모에게 이로운 점에 대한 영역과 모유수유 방법과 기술 및 문제 해결점을 다룬 영역이 영아에게 이로운 점을 다룬 영역보다 평균 점수가 낮아 상식적인 지식에 평균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산후조리라는 우리 문화의 특성상 산모의 바로 곁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육아를 보조해주는 과정에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교육매체, 소집단, 개별교육, 전문 의료인에 의한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 100점 만점에 83.88점으로 평균평점으로 계산하면 4.19점이었으며<Table 2> 이는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Jung의 연구(2011)에서 보고된 3.84와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3.87점보다(Jung 1997) 높은 점수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산모에 비해 모유수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SD
Age (yr)	<60	107	54.9	59.5±6.65
	60-69	70	35.9	
	≥70	18	9.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3	27.2	
	Middle School	50	25.6	
	High School	66	33.8	
	≥College	26	13.4	
Religion	Protestant	60	30.8	
	Buddhist	55	28.2	
	Other Religion	40	20.5	
	None	40	20.5	
Economic status	High	8	4.1	
	Middle	162	83.1	
	Low	25	12.8	
Living arrangement	With spouse	78	40.0	
	With spouse and children	73	37.4	
	Others	44	22.6	
Number of children	1	8	4.1	2.99±1.16
	2-3	129	66.2	
	≥4	58	29.7	
Relation	Mother-in-law	87	44.6	
	Woman's Mother	108	55.4	
Experience of breast feeding	Yes	184	94.4	
	No	11	5.6	
Age of grandchild (month)	≤6	81	41.5	7.86±5.17
	7-12	80	41.0	
	>12	34	17.5	
Living with baby	Yes	76	39.0	
	No	119	61.0	
Type of feeding (mother)	Complete breast feeding	46	23.6	
	Mixed Feeding	106	54.4	
	Formula feeding	43	22.0	
The practice of breast feeding	Necessary	105	53.8	
	By condition	86	44.1	
	Unnecessary	4	2.1	
Reason for low breast feeding rate	Mother's job	98	50.3	
	Lack of milk production	32	16.4	
	Lack of knowledge	46	23.6	
	Others	19	9.7	
Previous breast feeding information	Yes	94	48.2	
	No	101	51.8	
Sources of information (n=94)	Mass media	46	48.9	
	Family	21	22.4	
	Healthcare	13	13.8	
	Others	14	14.9	
Informants you hope	Mass media	37	19.0	
	Family	79	40.5	
	Healthcare	69	35.4	
	Others	10	5.1	

<Table 2>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on Breast Feeding

N=195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N(%)
Knowledge	14.84±3.32	.00	21.00	
Beneficial to mothers	5.86±1.66	.00	8.00	
Beneficial to baby	2.12±1.00	.00	4.00	
Breast feeding methods, techniques and problem solving	6.86±2.01	.00	10.00	
Attitude	4.19±0.49	2.75	5.00	
Educational needs				
Unnecessary				32(16.4)
Usually				59(30.3)
Necessary				104(53.3)

<Table 3> Correct Knowledge Rate regarding Breast Feeding

N=195

Category	Correct answer n(%)
1. Breast-fed babies catch fewer colds than fomular milk fed babies.	168(86.2)
2. Breast-fed babies' teeth are more durable than fomular milk fed babies.	139(71.3)
3. Fomular milk fed babies are stronger than breast-fed basies.	96(49.2)
4. Breast-fed babies do not have allergies.	165(84.6)
5. Breast milk contains substances for babies' brain development	159(81.5)
6. Breast milk has disease-prevention nutrients.	169(86.7)
7. Breast feeding prevents obesity.	148(75.9)
8. If 4-month-old babies feed only from breast milk, they can lack nutrients.	99(50.8)
9. Breast feeding acts as natural contraception until one year after childbirth	54(27.7)
10. There is a lesser risk of breast cancer among breast-feeding women.	165(84.6)
11. Breast-feeding women can control their weight more easily..	132(67.7)
12. Breast feeding helps prevent osteoporosis.	62(31.8)
13. Breast-feeding women can consume penicillin during the breast-feeding period.	13(6.7)
14. Stress is not related to the amount of breast mlk given..	92(47.2)
15. If a women's breast is small, the amount of breast milk is small.	150(76.9)
16. Throw away breast milk 2 or 3 days after the delivery of a baby	127(65.1)
17. Baby feeding should be done every 4 hours to prevent overeating.	78(40.0)
18. If a baby urinates 6-8 times a day, then it has been breast fed enough.	114(58.5)
19. Breast feed from one breast at a time.	33(16.9)
20. When a breast-feeding women has mastitis, the breast-fed baby can be infected.	80(41.0)
21. If nipples are laceration or are bleeding, apply antibiotic ointment on the nipples.	110(56.4)
22. In order to get enough breast milk, breast-feeding women should consume liquid foods such as soup, juice and water.	150(76.9)
23. Be careful that the baby doesn't bite the mother's nipple	170(87.2)
24. Leftover breast milk should not be squeezed out.	103(52.8)
25. If a breast-feeding women has breast engorgement, the breast-feeding times should be reduced for the baby	117(60.0)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유수유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94.4%가 모유수유를 직접 시행한 경험이 있고, 그 당시의 경제상태,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권장 정도 등과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별로는 ‘엄마젖 먹이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된다’(4.73±0.71)가 가장 높아 Kim & Choi(2001), Lee 등(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 외 ‘엄마젖 먹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런 수유 방법이다’(4.67±0.54), ‘내가 할 수 있다면 엄마젖을 먹이는 것이 좋다’(4.67±0.74), ‘엄마젖 먹이는 것은 아기의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킨다’(4.61±0.76) 등의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엄마젖을 먹이면 아기가 엄마젖을 충분히 먹었는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3.15±1.24), ‘엄마젖 먹이는 것은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든다’(3.74±1.18) 등의 문항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Table 4>.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교육이 제공된다면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모유수유 교육요구는 16.4%(32명)만이 불필요하다고 하여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조부모도 출산교실과 육아교실에 참여하게 하여 좀 더 효과적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Lee 등 2011)이

<Table 4>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N=195

Category	M±SD
1. Breast-fed babies will be healthier.	4.48±0.68
2. Breast feeding is the most natural feeding method.	4.67±0.54
3. Breast feeding makes for a bad body shape.	3.74±1.18
4. Breast feeding makes the mother and baby closer.	4.73±0.71
5. Breast feeding reduces sexual attraction.	3.76±1.16
6. Breast feeding satisfies emotional needs for the baby.	4.61±0.76
7. Breast feeding is embarrassing.	4.55±0.86
8. Breast feeding takes away responsibility from the baby to feed itself.	3.74±1.28
9. Breast feeding makes the mother feel her efforts are worthwhile.	4.52±0.75
10. Breast feeding is tiring.	3.78±1.28
11. Breast feeding eases the mind.	4.20±0.98
12. When breast feeding, the mother should worry about how much milk the baby is consuming.	3.15±1.24
13. Breast feeding is enjoyable.	4.44±0.82
14. Breast feeding is inconvenient.	3.97±1.15
15. A mother feels she will breast feed the baby well.	4.36±0.90
16. If a women is a breast-feeding mother, she won't have enough personal free time.	3.19±1.38
17. If a mother delivers another baby, she will breast feed again.	4.49±0.86
18. A baby will like breast feeding more than fomula feeding.	4.51±0.89
19. Breast feeding is worse than fomula feeding for a baby	4.33±1.10
20. If a mother can breast feed, it will be better.	4.67±0.74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 교육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 교육요구의 결과는 <Table 5, 6,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모유수유 지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의 연령, 경제상태, 손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즉, 60세 미만(15.17)이 70세 이상(13.06)에 비해서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고($p<0.05$),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15.08)가 하인 경우(13.04)에 비해 지식 정도가 높았다($p<0.05$). 또한 손주가 6개월 이하(15.36)인 경우 7-12개월(13.99)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지식이 높았다($p<0.05$).

60세 이상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Park & June(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정보 이해능력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실무에서 대상자의 의료정보 이해능력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에서도 연령이 높은 군에 대한 고려와 노인의 이해능력에 맞는 단계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과 손주 개월수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모유수유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산모

<Table 5> Knowledge of Breast Feed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y	M±SD	t or F	p
Age (yr)	<60	15.17±3.21 ^a	3.250	.041* (a>c)
	60-69	14.77±3.41 ^b		
	≥70	13.06±3.15 ^c		
Economic status	High	15.50±2.67 ^a	4.418	.013* (b>c)
	Middle	15.08±3.16 ^b		
	Low	13.04±3.98 ^c		
Age of grandchild (month)	≤6	15.36±3.21 ^a	4.667	.010* (a>b)
	7-12	13.99±3.38 ^b		
	>12	15.59±3.04 ^c		

* $p<0.05$, ** $p<0.01$, *** $p<0.001$

의 수유형태(딸, 며느리),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산모가 완전모유수유를 한 경우(86.76) 인공수유(81.21)에 비해서 모유수유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p<0.05$),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모유수유 태도가 산모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유수유를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86.34)가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80.99)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p<0.05$).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가 지식부족이라고 한 경우(86.35)가 기타(엄마 건강 고려, 분유에 대한 과대선전, 핵가족화 등)(78.58)에 비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p<0.05$)(<Table 6>).

3)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요구

는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즉,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집단은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를 엄마의 직업 때문이라고 많이 응답하였고, 모유수유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 역시 직업 때문이라고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기타 이유도 많이 보고하였다($p<0.05$). 기타 이유로는 엄마 건강 고려, 분유에 대한 과대선전, 핵가족화 등이었다<Table 7>.

4. 모유수유 지식, 태도와 의 상관관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32$, $p<.001$)를 보였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 & Choi (2001), Lee 등(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5. 모유수유 지식, 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유수유 지식과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경제상태, 손주 연령을 모유수유 태도와 함께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모유수유 태도와 경제상태가 중간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와 설명력은 13.6%였다<Table 8>.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Choi(2001)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학년, 계열, 종교, 성장기 수유형태, 성장기 가족구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등이 모유수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서 모유수유 태도는 지식에 영향을 미

<Table 6>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y	M±SD	t or F	p
Type of feeding (mother)	Complete breast feeding	86.76±8.77 ^a	3.696	.027* (a>c)
	Mixed Feeding	83.71±9.64 ^b		
	Formula feeding	81.21±10.63 ^c		
The practice of breast feeding	Necessary	86.34±9.11 ^a	7.691	.001** (a>b)
	By condition	80.99±9.77 ^b		
	Unnecessary	81.25±13.23 ^c		
Reason for low breast feeding rate	Mother's job	83.40±9.69 ^a	3.124	.027* (c>d)
	Lack of milk production	84.94±8.09 ^b		
	Lack of knowledge	86.35±9.24 ^c		
	Others	78.58±12.49 ^d		

* $p<0.05$, ** $p<0.01$, *** $p<0.001$

<Table 7> Educational Needs on Breast Feed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y	Educational Needs			χ^2	p
		Unnecessary	Usually	Necessary		
		n(%)	n(%)	n(%)		
Reason for low breast feeding rate	Mother's job	14(43.8)	33(55.9)	51(49.0)	13.093	.042*
	Lack of milk production	3(9.3)	7(11.9)	22(21.2)		
	Lack of knowledge	7(21.9)	15(25.4)	24(23.1)		
	Others	8(25.0)	4(6.8)	7(6.7)		

* $p<0.05$, ** $p<0.01$, *** $p<0.001$

<Table 8> Influencing Factors on Breast Feeding Knowledge and Attitude

N=195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R ²	F(p)
Breast feeding knowledge							.136	15.143 (<.001**)
	Breast feeding attitude	0.11	0.02	.33	4.93	<.001		
	Economic status (middle)	1.56	0.59	.18	2.64	.009		
Breast feeding attitude							.163	18.637 (<.001**)
	Breast feeding knowledge	0.88	0.20	.30	4.50	<.001		
	The practice of breast feeding	4.74	1.30	.24	3.64	<.001		

* $p<0.05$, ** $p<0.01$, *** $p<0.001$

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상태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영향력이 커서 경제상태에 따라 모유수유나 육아에 관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나라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고, 추후 경제상태에 따라 모유수유나 육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유수유 태도와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수유형태,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율 낮은 이유, 모유수유 지식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모유수유 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 < .001$), 모유수유 지식과 모유수유를 꼭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으며, 이들 변수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16.3% 설명하였다(Table 8). 이는 Kim & Choi(2001)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종교, 성장기 수유형태, 성장기 가족구조 등이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변수들 역시 모유수유 태도를 16.3% 만을 설명해주고 있어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 태도에 대한 추가적인 요인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G광역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내의 손주가 있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9.5세였으며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83.1%였으며,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 친정어머니가 55.4%, 시어머니가 44.6%였으며, 대상자의 94.4%가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험이 있었다. 손주의 연령은 평균 7.86개월이었으며, 대상자의 39%가 현재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다. 산모(딸, 며느리)의 수유형태는 54.4%가 혼합수유, 23.6%가 완전모유수유, 22.0%가 인공수유를 실시하고 있었다. 모유수유 실천에 대해서는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53.8%,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가 44.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50.3%가 엄마의 직업, 23.6%가 지식 부족이라고 대답하였다. 모유수유 교육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에 대해서는 48.2%만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48.9%가 대중매체, 22.3%가 가족, 13.8%가 의료인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 제공자는 40.5%가 가족, 35.4%가 의료인, 19.0%가 대중매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25점 만점에

14.84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산모에게 이로운 점에 대한 영역과 모유수유 방법과 기술 및 문제 해결점을 다룬 영역이 영아에게 이로운 점을 다룬 영역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 100점 만점에 83.88점으로 모유수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유수유 교육요구는 16.4%만이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연령, 경제상태, 손주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60세 미만이 70세 이상에 비해서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고($p < 0.05$),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가 하인 경우에 비해 지식정도가 높았다($p < 0.05$). 또한 손주가 6개월 이하인 경우 7-12개월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지식이 높았다($p < 0.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수유형태,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산모가 완전모유수유를 한 경우 인공수유에 비해서 대상자의 모유수유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모유수유를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p < 0.05$). 또한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가 지식부족이라고 한 경우가 기타(엄마 건강 고려, 분유에 대한 과대선전, 핵가족화 등)에 비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p < 0.05$).

넷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 = .32, p < .001$)를 보였다.

다섯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유수유 태도, 경제상태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13.6% 설명하였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서는 모유수유 지식, 모유수유 실천에 대해서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으며, 이는 모유수유 태도를 16.3% 만을 설명해주고 있어 추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후조리와 모유수유 시 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 대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가 산모의 모유수유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교육요구와 관련된 연구도 추후 필요하다.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약간 낮은 편이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요구는 16.4%만 불필요하다고 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지식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유수유 지식이 향상된다면 산모의 실질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유수유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교육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수준과 이해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Ahmed A, Bantz D, Richardson C. 2011. Breastfeeding knowledge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MCN Am J Matern Child Nurs.*, 36(6):361-367
- Cattaneo A, Quintero-Romero S. 2006. Protection, promotion and support of breastfeeding in low-income countries. *Semin Fetal Neonatal Med.*, 11(1):48-53
- Cernadas JM, Noceda G, Barrera L, Martinez AM, Garsd A. 2003. Maternal and perinatal factor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exclusive breastfeeding during the first 6 months of life. *J Hum Lact.*, 19(2):136-144
- Choi KS, Lee HJ. 2006. A study on knowledges and attitudes about breast milk feeding and needs for breast milk feeding educ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2):191-204
- Hanif R, Khalil E, Sheikh A, Harji A, Haris S, Rasheed MW, Ahmed S, Abdul Aziz k, Shaheen E, Younus A, Mansoor M, Touseef M, Yaseen T. 2010. Knowledge about breastf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olicy among doctors, paramedics and mothers in baby-friendly hospitals. *J Pak Med Assoc.*, 60(10):881-886
- Henderson J, Redshaw M. 2011. Midwifery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breastfeeding. *Child Care Health Dev.*, 37(5):744-753
- Jin SH. 2011. Knowledge and perception toward breast feeding of the spouses of the mothers. Masters degree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Jung HJ. 2011. A study on breast-feeding practices and knowledge of mother's in Yeosu. Masters degree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Jung KH 1997. Effec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omoting the breast-feeding practice in primipa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ehler HL, Chaput KH, Tough SC. 2009. Risk factors for cessation of breastfeeding prior to six months postpartum among a community sample of women in Calgary, Alberta. *Can J Public Health.*, 100(5):376-380
- Kenosi M, Hawkes CP, Dempsey EM, Ryan CA. 2011. Are fathers underused advocates for breastfeeding? *Ir Med J.*, 104(10):313-315
- Kim SG, Kim YK, Cho AJ, Kim HR, & Lim SE. 2009. The 2009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 Kim SH. 2009. Factors explaining mothers breastfeeding satisfac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5(4):270-279
- Kim SH, Choi ES. 2001. The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7(1):93-106
- Lee EJ. 1997. The effect of prenatal breastfeeding edecation on breastfeeding practice and retension of knowledge. Masters degree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HK, Song Y, Kang NM. 2008. A survey of fema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3):367-373
- Lee JY, Park SW, Park JH. 2002. A survey on breastfeeding practices and its related factors in Pohang city. *J.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6(1):149-167
- Lee KH, Lee YS, Ko MS, Kim HJ, Park NJ, Park YJ. 2011. *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II*. Hyunmoon. Seoul. pp 42-53
- Lee SO, Chung ES, Ahn SH, Moon GN, Park NH. 2003. A study of predictors of breastfeeding.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4):368-375
- Park CM. 2002.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2):23-43
- Park JY, June KJ. 2011. Influencing factors on functional health literacy among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2(1):75-85
- Park SY. 2009.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practice of breast-feedig among medical and paramedical person in hospitals and clinics. Masters degree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Sohn IH. 2007. A study on the affecting know ledge about, attitudes towards and practice of breast-feeding. Masters degree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Song BS, Cho JH, Lee IY, Kim MK. 2008. A Study on knowledge on breast feeding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Korean J. Food Culture*, 23(2):268-272
- Tenfelde SM, Finnegan L, Miller AM, Hill PD. 2012. Risk of breastfeeding cessation among low-income women, infants, and children: A discrete time survival analysis. *Nurs Res.*, 61(2):86-95